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
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
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4월 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.방송.통신 4월 5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4. 5. (화)	담당부서	지역경제총괄과 지역위협력팀
담당팀장	양광석 팀장 (044-203-4418)	담 당 자	윤태선 사무관(044-203-4452)

'16년 1분기 지방투자 심리 회복조짐

-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업체 큰 폭으로 증가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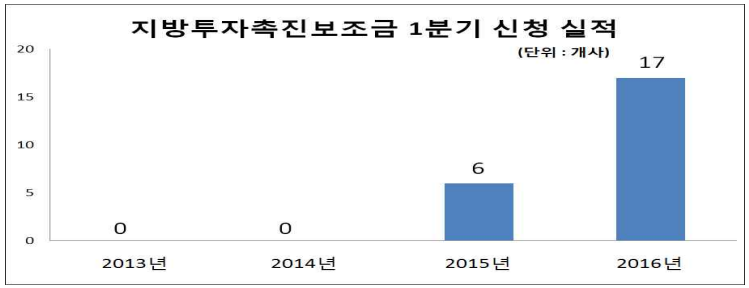
- 17개 업체, 2,736억원 투자, 신규일자리 660개 창출 기대 -

□ 최근 경기에 대한 엇갈린 전망* 속에 기업들의 지방투자보조금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2월 통계정 발표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증가한 반면, 소비와 투자는 감소 등

○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'16년 1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기업을 심의('16. 3월)한 결과, 총 17개 업체가 2,736억 원을 투자하고 660명을 신규 고용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.

○ '13년과 '14년 1분기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이 아예 없었고, '15년 1분기에는 6개 업체가 승인받은 실적과 비교하면 최근에 기업들의 지방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점으로 보인다.



○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가 3개, 지방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가 14개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다는 지방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하며,

○ 지역별로는 전북이 5개 업체로 가장 많고, 충북과 광주가 각각 2개씩이며, 그 밖에 대구, 대전, 세종, 강원, 충남, 전남, 경북, 경남이 각각 1개 업체씩 지원을 받는다.

* 전북의 경우 완주, 익산, 김제 등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북도 차원에서 철저한 양해각서(MOU) 사후관리, 지방비 예산확보 등이 뒷받침되면서 투자유치가 상대적으로 활발

□ 올해 1분기 보조금 수요 증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결과로 평가했다.

○ '15~'16년 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설비투자 보조율을 12% → 14%로 상향 조정하여 투자 인센티브 강화
  * 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지원금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의미
- 고용이 많은 업체에 대한 보조율 추가지원(최대 5%p)과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도 고용배점을 확대(25점→35점)하여 일자리 창출
- 기초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시군집중 유치업종 신설(과거에는 시도가 선정)
- 지방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신규지원 유형에 포함

○ 특히, 올해부터는 신산업을 포함한 지역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율을 우대적용(2%p 추가)하고,

-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투자의 경우,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, 설비투자 보조비율도 10%p 추가 지원하는 등 정책적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4-05 11:33:06

○ 굵직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보조금 심의위원회 분기별 정례개최 등 소소한 운영측면의 개선도 보조금 신청의 예측성을 높여 1분기 보조금 신청실적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.

- 과거에는 보조금 신청이 일정건수 쌓이면 심의회를 개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조금 신청 후 언제 보조금을 지원받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웠고, 신청을 늦추는 경향이 있었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※ 붙임: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위협력팀 윤태선 사무관(044-203-44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4-05 11:33:06

첨부 |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

□ **(제도개요) 지방투자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**를 위해 지자체가 유치한 **지방투자기업*에 보조금 지원**

*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('04), 지방 신·증설투자('11), 국내 복귀기업('12),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('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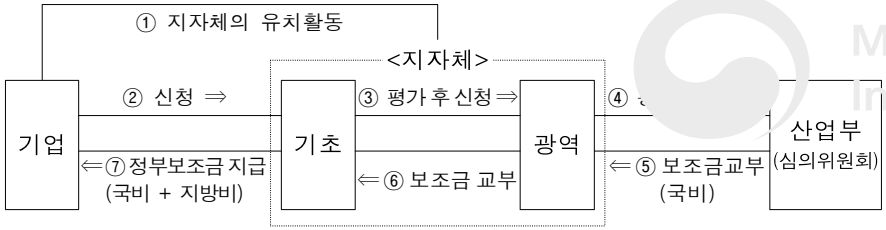
○ **(지원내용) 입지·설비투자**에 대해 **지역별·기업규모별**로 지원비율 및 국비·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 지원

* 일반지역·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액의 일부(입지 30%, 설비14%)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·지방비 65:35 비율로 지원

○ **(지원절차)** 지자체가 유치하여 신청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가 **지원타당성을 평가**하고, **심의위원회 의결**을 거쳐 지원 결정

* (위원장)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, (위원) 지역위협력팀장 및 변호사·회계사 등

< 보조금 지원 절차 흐름도 >



< 보조금 지원 비율 >

지원비율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매칭비율 (국비:지방비)
일반지역	- (설비) 8%	(입지) 10% (설비) 11%	(입지) 30% (설비) 14%	65 : 35
수도권 인접지역	- (설비) 6%	- (설비) 8%	(입지) 9% (설비) 11%	45 : 55
지원우대 지역	- (설비) 11%	(입지) 20% (설비) 19%	(입지) 40% (설비) 24%	75 : 25

○ 산업부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결정되면 국비 전액을 해당 광역시도에 교부